



국립세계문자박물관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전 세계의 문자를 주제로 2022년 송도에 개관하는 최초의 국립 박물관입니다. 문자는 언어의 보조 도구로서 생성된 후 끊임없는 개혁과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또한 언어의 보조 수단이라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사회 발전에 심원한 영향을 끼치면서 인류 사회의 강력한 매개물로 성장해 왔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이러한 문자의 중요성, 다양성, 역사와 활용을 전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역할합니다. 인류 문자 언어의 다양성의 보존과 확산에 기여하며 관람 중심의 일방적 의사전달 형태가 아닌, 관람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쌍방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박물관을 추구합니다.

심볼 Symbol

심볼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언어 단위를 나타내는 부호로서의 문자의 역할에 집중합니다. 단위 상자의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써 단어문자, 음절문자, 음소문자, 자질문자 등 수많은 문자 체계에 대응해 문자 체계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단위 상자 안의 그래픽 요소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두문자어 'NMWW'를 나타냅니다.